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27일 농촌진흥청 영농상황실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각 지역별 방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허태웅 농진청장, 지역별 추진 상황 점검회의 주재

신속 방제·조기 예찰 통한 오염원 사전 제거 강조

과수화상병 발병 시기가 지난해보다 빠르고 미발생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계기관과 과수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에 따른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허 청장은 각 도(道) 농업기술원이 보고한 과수화상병 발생현황과 대응 상황을 살피며, 확진 시 매몰 등 신속한 방제 추진과 조기 예찰을 통해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첫 확진된 시기는 각각 5월 18일(사과)과 5월 19일(배)이었으나, 올해는 4월 26일(배), 5월 7일(사과)로 지난해보다 증상 발견 시기가 빠르고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인근의 미발생 지역에서 확진되거나 세균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현재 경기, 충북, 충남 등 전국 124농장(66.6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경기 남양주시 배 농장 1곳에서 확진되고,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 지역 등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현재 정밀진단 중이다.

농진청은 올해 발생 추이를 고려해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의심신고와 증상 발견이 되고, 6월 기상상황에 따라 다(多)발생 등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수농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열매솎기와 열매 봉지 씌우기 등 농작업 시 작업자 및 작업도구 소독과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전달하여 농업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회의로 진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관 및 도 농업기술원장,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 "생활에 도움"

지난해 실태분석 결과 91%가 응답 전년보다 8.6%p 상승

경제적 효과 외 심리적·사회적 측면서도 긍정적 영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91%로 전년도(82.4%) 대비 8.6%p 상승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수급자도 77.4%로 전년도(61.2%) 대비 16.2%p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 소득 하위 20%~40% 수급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 82.1%로 전체 수급자의 생활 도움 만족도(91%) 및 수급액 만족도(77.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66.1%)'이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37.3%) 대비 28.8%p 증가했고, 기초연금 사용 용도로는 식비(78.9%)가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이 단순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51.3%)' 순으로 나타났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중년 맞춤형 '싱글벙글 정기예금'

우정청, 가입금액 무제한·최고 연 1.30% 금리

세무상담·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 제공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허원석)이 중년층에게 우대이율 및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을 오늘 출시한다.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이지만 추가입금과 분할해지가 가능해 목돈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 원으로 제한은 없으며, 우대조건 충족 시 최고 연 1.30%(3년 기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누구나 전국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1년, 2년, 3년 연단위로 가입하면 된다. 만 50세 이상 고객, 정기예금 첫 거래 고객, 연금 또는 급여 실적 등에 따라 최고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자동 재예치 등 만기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도 있다. 세무상담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를 가입기간 중 1회 받을 수 있고, 만 19세 이상 우체국 휴일재해보장보험 서비스도 예금 가입 시부터 1년간 무료로 제공받는다.

또한 신상품 출시 경품 이벤트도 오늘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열어,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건조기, 무선청소기, 미니 골드바, 우체국쇼핑 모바일 상품권 등 많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허원석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은 중년층 대상으로 우대금리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상품"이라면서 "우체국예금은 앞으로도 젊은층뿐만 아니라 중년층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99-1900) 및 우체국예금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은, '나눔명문기업' 가입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5일 본점 9층에서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실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누적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에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한다.

전북은행은 지역 유일의 향토은행으로 코로나19로 국내·외 금융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진심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전북 제3호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됐다.

이 날 행사에는 서한국 은행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김경진 부행장, 박용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가치 창출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ESG경영을 확대하고 금융으로 더욱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 협력 모색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싱하이밍 주 중대사와 면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27일 새만금 사업현황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을 청취하고 수변도시, 동서도로, 신항 건설용지 등 현장을 둘러보았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27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만금은 지난 2015년 양국 정부가 공동 지정한 한국 측의 유일한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중국 측 3개 산단(산동성 옌타이시, 장수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과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양 청장은 "새만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을 통해 K-뉴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친환경 데이터센터, 그린수소, RE100산단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ESG경영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새만금은 이를 실현할 더 없이 좋은 투자처다"라며 "중국 기업이 새만금에서 성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새만금 한중산단에 투자해 양국의 새로운 사업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싱 대사는 "새만금 한중산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싱 대사는 새만금 사업현황과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을 청취하고 수변도시, 동서도로, 신항 건설용지 등 현장을 둘러보았다.

/유호상 기자

식품산업 전직지원교육 1기 과정에 참석한 교육생들.

고용위기산업 실업자들에 '단 비'

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 전직교육 과정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용차 산업 등 지역 고용위기 산업에서 발생한 실업인력 및 예비인력에게 식품산업으로의 전직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익산시-김제시-완주군이 컨소시엄으로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에서는 상용차 산업 실업자,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근로자 발생 등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반산업이자 성장산업인 식품산업으로 전직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채용연계를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3주간 운영되며 식품현장에 필요한 기본 법규 및 위생관리, 현장안전교육, HACCP법정교육 및 식품기업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식품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마케팅 특화과정과 회계/사무 특화과정을 선택해 참여 할 수 있다.

27일 1기 교육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30여명의 전직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에도 식품기업 재직자 보수교육과 취업정착금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교육은 8월까지 상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협 개최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27일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회의실에서 호남지역 광역지자체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호남지역 지역통계 발전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호남권 지역통계 개발 현황과 주요현안 등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통계 개발·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호남권 지역통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다.

이호석 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호남지방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히 구축되고, 호남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특화통계가 개발돼 호남권 지역통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체크카드로 배달 앱 주문하고 1만원 환급 받으세요"

신협, 전 국민 외식 프로모션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지난 24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손잡고 신협체크카드 회원 및 외식 소상공인을 위한 전 국민 외식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및 또는 모바일앱(온뱅크)에서 외식 프로모션 신청 후, 신협 체크카드(BC카드 계열)로 배달앱에서 4회 이상 주문 결제 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대상 가맹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카카오톡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총 15개 배달앱으로, 배달비 포함 2만 원 이상만 결제하면 된다.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으로 인정되고 4회 단위로 1만원이 환급 되지만, 환급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많이 결제할수록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익월 16일에 회원 대표카드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실시한 '연말연시 집콕외식' 프로모션에 참여한 회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응모되며 지난해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프로모션에서 2만원 이상 3회 결제한 후 프로모션이 종료됐을 경우 3회 실적을 인정받아 이번해 프로모션에는 처음 1회만 결제해도 4회 실적을 채우게 되어 1만 원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모션의 신규 참여자는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협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창구에서도 프로모션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BC계열 신협체크카드로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추가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6월 30일까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1회만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00만 원(5명), 27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토스터기(10명), 24만원 상당의 커피머신(50명) 등 총 1만명에게 8,000만원 상당의 푸짐한 선물도 증정해준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